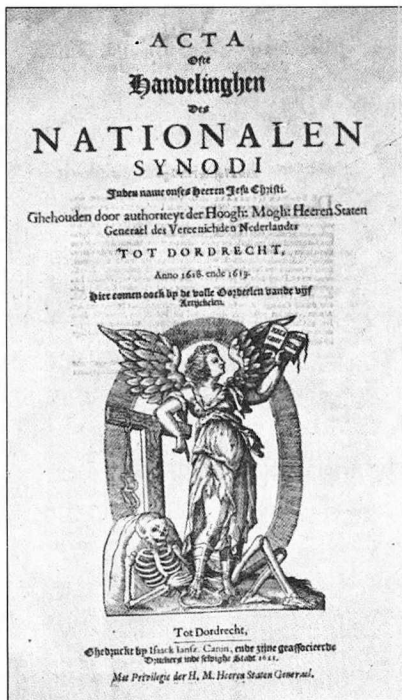


원전연구 기틀 다지는 칼빈사상의 寶庫

제2회 '애서가상' 받은 정성구교수



1621년 발간된 「돌트총회」 회의록.

한국애서가클럽(회장 여승구)이 작년부터 제정, 수상하고 있는 '애서가상' 제2회 수상자로 총신대 대학원장 정성구교수(50)가 선정됐다. 지난해 수상자인 작곡가 나운영씨와 서지학자 안춘근씨에 이어 올해 수상자로 결정된 정교수의 이번 수상이유는 "칼빈 관계 문헌을 수집하여 기독교 연구에 크게 공헌하였으며, 서양 고서의 불모지에 세계적 수준의 장서를 갖추어 원전 탐구의 새 학풍을 형성하는 데 크게 공헌했다"는 점이다. 출판인·언론인·학자 등 130여명의 회원들로 구성된 한국애서가클럽은 장서의 평가 기준을 양보다는 그 자료적 가치에 둬으로써 단순한 호사가적 장서취미를 지양하자는 취지를 살려 각계 전문가의 추천을 받아 주목할 만한 '애서가'를 뽑은 것인데, 정성구교수 역시 소장하고 있는 칼빈주의 관계 문헌의 자료적 가치가 높게 평가된 것이다.

귀중본, 유일본 등 원전도 많아

정교수는 이번 수상이 새삼스러운 일로 받아들여질 만큼 신학계에서는 이미 엄청난 장서가로 익히 알려진 인물이다. 1만여권에 이르는 그의 장서목록 중 칼빈주의 관련자료로는 16세기에서 19세기까지의 각종 칼빈 자료들을 비롯해서 칼빈주의사상 자료문헌 1천여권, 연구논문 3천여종, 칼빈주의 신학자 및 사상가의 강연녹음테이프 1천5백여종, 그리고 19세

기 칼빈주의 운동의 거목인 아브라함 카이퍼 관련자료 200여종 등 총 6천여권이 있으며 나머지는 주로 한국교회사 자료들이다.

이 장서들은 그 규모도 규모려니와 국내는 물론 칼빈주의 연구의 본고장인 네덜란드에서도 구하기 힘든 귀중본이 많아 더욱 성가를 높이고 있는데, 칼빈주의 5대교리가 결정된 17세기 「돌트총회 회의록」이나 칼빈의 제자 베자가 쓴 신약 성경 「베자텍스트」 등 세계적으로 몇권 남지 않은 희귀본과, 1578년 런던판 칼빈 설교집이나 1650년 비서에 의해 제작된 동판 인쇄물 「기독교 강요를 읽고 있는 요한 칼빈」 등의 유일본은 특히 그가 아끼는 자료들이다.

“신학자로서 그동안 공부하면서 필요에 의해 틈틈이 모은 것들일 뿐”이라는 정교수의 이 ‘결코 범상치 않은 수집벽’은 그의 학문적 역량과 함께 자연스럽게 이뤄졌다고 한다. 신학에 몰두하며 차츰 연구방향의 윤곽을 잡아 갈수록 자료의 한계가 절실하게 느껴졌다는 것이다. 직관적인 감성을 중시해온 우리의 문화적 전통은 학문에 있어 자료에 의거한 철저한 객관적, 논리적 분석과정을 소홀히 하는 결과를 낳음으로써 특히 인문과학분야의 자료들은 현재까지도 매우 빈약한 실정이라는 것이 정교수의 지적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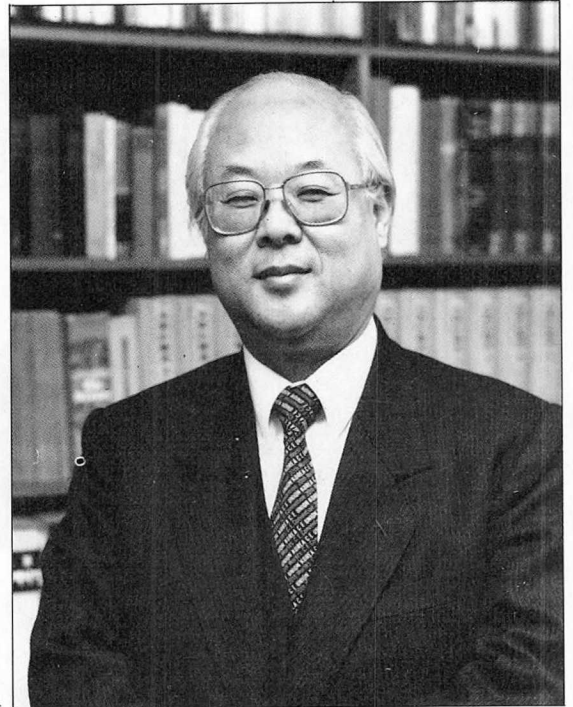
유학시절 고서수집이 계기

“2,3차 자료보다는 원전에 먼저 접근해야 하며, 제 분야의 원전찾기에 주력해야 하는 것이 학자의 소임 중의 하나”라고 말하는 그의 지론은 따라서 적잖은 투자를 요구하는 자료수집으로 이어지게 된 것이다.

“개인사적 이야기를 글이나 설교로 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삼아온” 그이지만, 한 종교신문에 연재한 자기고백적 ‘신학수업기’를 보면 예의 그 학자적 면모와 쉽지 않았던 자료수집 편력과정을 읽어낼 수 있다.

어린시절 집 근처의 개척교회에 다니게 된 것을 계기로 자연스럽게 기독교에 입문한 정교수는 ‘작은 목사’라는 애칭으로 불리면서 신학을 하기로 결심, 건국대 영문과를 거쳐 총신대에 입학한 후로 지금까지 근 30여년을 ‘총신인’으로 보내왔다. 남다른 학구열로 특히 네덜란드어와 헬라어 등 특수어에 관심을 갖고 공부하면서 문교부시행 네덜란드 유학생 시험 통과 제1호를 기록하기도 한 그는, 뿌라야대학생활을 계기로 칼빈의 개혁주의사상에

정교수는 이번 수상이 새삼스러운 일로 받아들여질 만큼 신학계에서는 이미 엄청난 장서가로 익히 알려진 인물이다. 칼빈관계 문헌을 중심으로 한 만여권의 그의 장서들은 기독교연구에 대한 공헌뿐 아니라 서양고서의 불모지에 원전탐구의 학풍을 형성했다는 점에서 자료적 가치가 매우 높다.



정성구교수.

심취하게 된다. “장학금만 믿고 떠난” 유학생 활이 넉넉치 못했던 것은 물론이다. 그러나 바로 이 시기부터 그는 본격적인 고서수집에 취미를 붙여 개혁과 신학의 책은 닥치는대로 모으기 시작했고, 그를 신학적 혼돈에서 구해준 카이퍼 관련자료들도 집중적으로 찾아나섰다. 틈틈이 여가를 이용해 영국, 독일, 프랑스, 스위스 등지까지 원정을 다닐 정도로 그는 귀국할 때까지 5년동안 유럽의 고서점가를 섭렵했던 것이다. 그가 모은 자료들 중 한가지 특이한 것은 강연 및 설교테이프가 적잖은 비중을 차지한다는 점인데, 문헌자료로 남아 있지 않은 중요 신학자의 육성테이프도 자료적 가치가 높기 때문이다.

지금도 해외에 나갈 기회가 있을 때마다, 혹은 정보를 입수했을 때면 “최선을 다해” 자료수집에 나선다는 그는 암수텔담 고서점에서 「하멜표류기」를 보고 겨우 돈을 마련해 며칠 후 찾아갔지만 이미 팔려버렸던 일, 제네바 체류 중 너무 고가의 책을 사는 바람에 음식을 살 돈이 없어 며칠을 굶었던 일 등을 안타깝고도 즐거운 기억으로 꼽기도 한다.

현재 그의 이 방대한 자료들은 네군데로 분산돼 있다. 사당동과 용인캠퍼스의 연구실과 그가 설립한 ‘한국 칼빈주의 연구원’, 그리고 주로 한국교회사 자료들을 모아놓은 집의 서가가 그곳이다. 칼빈 관련자료들은 대부분 그가 지난 85년에 설립한 연구원에 비치돼 있는

데 자료들을 체계적으로 분류, 정리해 연구자들에게 열람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소장 자료 목록집을 만들어 자료를 완전히 개방해놓고 있기도 하다. 이 연구원이 주최한 87년의 ‘요한 칼빈 16세기 자료전시회’와 88년의 ‘아브라함 카이퍼박사 자료전시회’는 당시 국내외로 많은 관심을 끌었는데 “이제는 이 자료들이 내 것이 아니라 공동소유해야 한다”는 정교수의 생각에서 비롯된 행사였다. “나의 신학은 언제나 경건과 학문의 조화”라는 그의 말과도 맥을 같이 하는 일이다.

연구원 설립해 자료 개방도

오늘날 한국교회는 지나친 물량주의와 세속주의에 빠져 있다고 지적하는 정교수는 “진실한 강단의 회복, 설교자의 회복”을 가장 시급하고 본질적인 문제로 보면서 이와 함께 신학계에서는 칼빈주의를 비롯한 근대 신학에 대한 연구가 한층 심화돼야 한다고 강조한다. 20대에 네덜란드어 문법책을 펴낸 것을 시작으로 지금까지 꾸준히 무거운 저서와 역서를 선보이는 한편 적잖은 설교집과 강연집, 에세이집을 펴낸 것도 신학자이자 목회자로서의 자신의 임무에 충실하고자 했기 때문이다.

거듭 자료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그는 그동안 모은 자료들을 바탕으로 가칭 「한국교회 설교사」를 집필할 계획이다.

—정소연 기자